한라시론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과 관광규제

문 한 근
한국은행 제주본부기획조사부장

지난 4월,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이 관광객 증가로 인한 자연 훼손 등을 이유로 6개월간 폐쇄를 결정하였다. 이후 제주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다. 최근 제주는 교통 혼잡, 쓰레기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환경오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늘 관광객이 있다. 제주 관광객은 2010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불과 6년 만에 두 배나 늘어 1500만 명에 이르렀다. 이런 탓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광객들로 인해 제주도민의 삶이 악화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관광객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인상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오염 '원인부담자 원칙'에 근거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수익금은 환경개선 사업 등에 활용된다. '원인부담자 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다만 현 제주의 사회적 문제를 관광객에만 초점을 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으로 규정하려면 보다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우선 '원인부담자 원칙'에서 도민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점이다. 현 사회적 문제가 관광객들에 의해서만 유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례로 지난해 축산농가의 불법 분뇨 처리 사태만 봐도 그렇다. 렌터카가 교통 혼잡의 주범이라는 주장도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제주의 가구당 차량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 중 렌터카 비중은 채 10%도 되지 않으며 대부분은 현지인들의 차량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관광객의 경제적 기여도보다는 관광객에 의한 환경훼손, 교통악화, 쓰레기 증가만을 강조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수년간 관광객은 제주 성장을 견인하였다. 제주는 관광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고용증대와 인구순유입 그리고 건설업 등 여타 산업도 동반 성장하는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여수 등 여타 관광지와는 달리 제주가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관광은 제주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 산업이다.

이러한 가운데 섣부른 '원인자부담 원칙'이 자칫 관광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생긴다. 관광객 감소는 지역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관광수입과 부가가치가 각각 3300억원, 15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모든 사회적 문제를 투어리스티피케이션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주민들과 공유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관광객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와 더불어 관광객과 도민의 상생방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 외의 사회문제는 도민들도 관광객들과 함께 책임을 적극 공유해야 한다.

바야흐로 휴가의 계절이다. 여느 때와 같이 올 여름도 제주는 많은 관광객을 품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제주관광이 도민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설

미세먼지 뒤덮이는 청정제주 부끄럽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해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미세먼지는 폐 기능을 떨어뜨리고 기관지천식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며 만성기관지염이나 폐암의 발생률을 높인다. 때문에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지역 미세먼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 인위적 오염원이 80% 이상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그제 제주지역 미세먼지 발생특성 및 오염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81.8%가 인위적 오염원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주시 연동 소재 대기오염측정소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채취한 미세먼지(PM-2.5)의 질량농도와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원을 추정한 것이다. 연구 결과 지난해 제주시 도심지역의 미세먼지는 평균 18.31±9.72㎍/㎥으로 올해 3월 개정된 연평균 기준인 15.0㎍/㎥(개정 전 25.0㎍/㎥)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올 때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였다. 또 계절별 평균 농도는 봄에 21.91±9.74㎍/㎥, 여름 20.96±9.03㎍/㎥, 가을 15.25±8.21㎍/㎥, 겨울은 17.31±10.91㎍/㎥이었다. 주요 오염원은 2차 황산염 및 오일연소, 2차 질산염, 바이오매스 연소 및 자동차 배출, 해염입자, 토양먼지, 산업관련 등 6가지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주된 오염원은 바이오매스 연소 및 자동차 배출(31.0%), 2차 황산염 및 오일연소(30.4%), 2차 질산염(16.7%) 등 인위적인 영향으로 추정되는 오염원이 대부분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청정하다는 제주가 부끄러워진다.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인위적인 오염원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제주와 서울의 공기질이 거의 비슷하다. 대기환경정보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제주가 37.56㎍/㎥로 서울(39.52㎍/㎥)과의 차이가 1.96㎍/㎥에 불과했다. 초미세먼지(PM-2.5) 역시 제주(19.88㎍/㎥)와 서울(21.32㎍/㎥)이 별 차이 없었다. 그만큼 제주의 공기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렇다고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행정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 필터인 '도시숲' 확대가 확실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심이 없다. 이미 조성된 도시숲마저 없애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판에 무슨 대책을 기대하겠는가.

편집국 25시

나쁘지 않은 '정회' 사태

오 은 지
교육문화체육부 차장
ejoh@ihalla.com

시작부터 파열음이 나왔다. 삐걱거리며 불안한 첫 걸음을 뗐다. '시즌 2'를 시작한 '이석문호'의 제주도교육청 첫 업무보고 이야기다.

제11대 제주도의회 '첫'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난 13일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의 '첫'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된지 약 40분만에 정회됐다. 2기 임기를 시작한 이석문 교육행정이 의회를 넘어 도민에게 고하는 '첫' 업무보고부터 파행을 빚은 것이다.

일단은 이석문 교육감의 눈치(?)를 보는 교육청 집행부의 '소신없는 답변'이 문제가 됐다.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을 향해 지금까지 의회가 제안한 정책 불수용과 증액 예산 미집행 관행에 대한 변화, 그리고 집행부의 책임감을 주문했다. 특히 교육감이 "노(NO)"하더라도 집행부가 동의한 정책 변화와 예산 증액 집행을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의지를 물었다. 하지만 소신있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의원들의 업무보고 '보이콧'이 요구됐고 강시백 위원장은 "교육감과 협의하고 답변하시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교육감의 허락(?)을 받은 듯 회의 속개 후 집행부는 "앞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 예산도 집행하겠다"고 당당히 말했다.

'정회 사태'로 분명 교육청과 의회의 첫 단추는 잘못 꿰어졌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시작이다. 덕분에 교육청은 소통·변화할 것이고, 간부 공무원들은 책임있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제 막 이석문 교육감의 '시즌 2'가 시작됐다. 시작이 반이다. 교육감이 앞으로 과연 지난 선거에서 쟁점·논란이 된 주요 교육 현안들, 고입제도·IB 교육 프로그램 등 새로운 교육정책 도입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육감 스스로도 인정하는 '불통'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도민들의 가늠은 이미 시작됐다.

뉴스-in

"더 정정당당히 싸워나갈 것"

국제학교법인 직원 향응 적발

○…제주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모 국제학교법인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가 적발돼 중징계 위기에 봉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6월 국제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직무관련 업자로부터 304만원 상당의 차량연료를 제공받는 등 3건의 부당한 향응을 받은 A씨를 적발하고 중징계를 요구.

학교법인 관계자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회사에도 엄중한 경고를 했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업무보고 전직원 공유 강조

○…고길림 제주시장 직무대리 부시장은 도의회 업무보고 준비와 재정집행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철저히 보고할 것을 당부.

고 시장 직무대리는 18일 오전 본청 실국장, 현안부서 과장 등이 참여하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보고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직원이 공유하라"고 강조.

특히 고 시장 직무대리는 "도의원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재정집행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 각 부서별 재정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피력. 이현숙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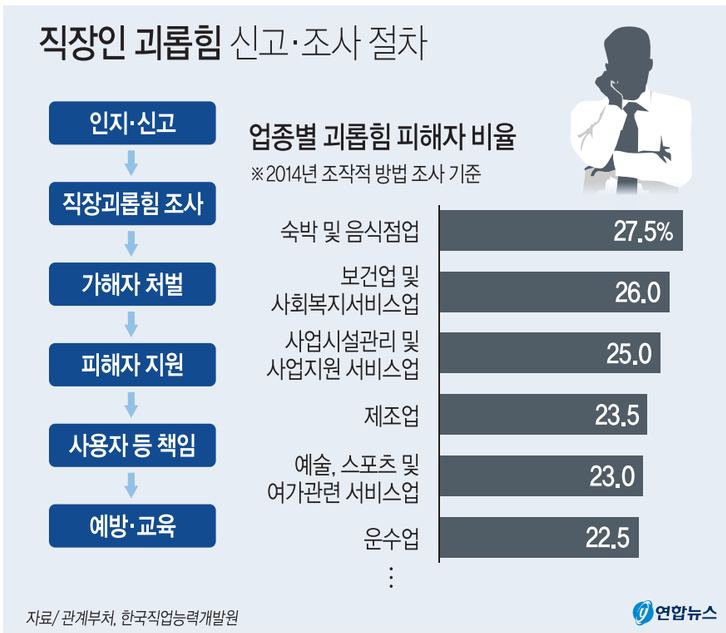
재밋섬 대표에 경고성 발언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이 의회와 언론에 불쾌감을 드러낸 '재밋섬' 대표에게 경고성 발언.

이 위원장은 18일 속개된 임시회에서 "어제 업무보고에서 재밋섬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더니 SNS를 통해 압박받고 있다"며 "문제를 만들수록 우리는 더 조사하고 정정당당히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

앞서 재밋섬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수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지역에서 깜냥도 안되는 사람들이 사설 좀 쓴다. 이제는 용서하지 않기로 했다"는 글을 게시. 표성준기자

그래픽 뉴스



부 고

이상훈(서귀포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 아버지 **고부이공 성희(고부이씨 대종회 고문·향년 89세)**께서 서기 2018년 7월 17일 14시 13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8년 7월 20일(금)
▶발인일시: 2018년 7월 21일(토)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대정읍 모슬봉 가족묘지

부 인 김부녀
아 들 이상훈 며느리 이재남
승훈 강선옥
딸 이영실 사 위 김홍수(故)
영란 김두진
영주 김우성
영선 송형관
손 이진혁 외 손 김경범
윤지 김진우
진원 김부관
윤수 김혜영
김도형
김주형
송유석
송채원

※ 연락처 :
이상훈 010-5315-1609 ,이승훈 010-3698-2804
이영실 010-8742-2160, 이영란 010-9696-6531
이영주 010-9329-7522, 이영선 010-2697-2381
이재남 010-9027-1601, 강선옥 010-8660-2804
김두진 010-2872-4758, 김우성 010-7750-3285
송형관 010-3697-2381

부 고

김경환 분도(前 신성여중교장·천주교제주교구 평협회장·향년 78세)께서 서기 2018년 7월 18일 02시 54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8년 7월 19일(목)
▶빈 소: 중앙성당
▶장례미사: 2018년 7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지: 황사평(납골)

미망인 정애숙(아폴리나)
딸 김리아(세실리아)
지나(데지나) 사 위 박우진(시몬)
세나(세라피나)

※ 연락처 :
김병학 마티아 010-9838-7878
김정걸 발렌티노 010-9936-2880

위 령 회

부 고

김정현(제동종합건설 이사) 어머니 **진주강씨 순희(향년 81세)**께서 서기 2018년 7월 17일 오후 8시 45분경 노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8년 7월 19일(목)
▶발인일시: 2018년 7월 20일(금)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제5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김정현 며느리 변미숙
딸 김우정
김현숙 사 위 이길용
손 자 김형준 외손자 양철웅
김유준 외손녀 양희연
김민준

※ 연락처 : 김정현 010-9458-3390
변미숙 010-5231-676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성진(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8년 7월 19일

부 인 양정열
아 들 김양호 며느리 최봉화
양홍 송정림
딸 김양순
양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고승남(향년 8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8년 7월 19일

부 인 김순덕
아 들 고성오 며느리 오순전
딸 고희리
고미리 사 위 백용현

대리점 모집 신기한 발명

소자본 선착순 유리한 기회
창업, 겸업, 부업

※ 우주복을 만드는 미국 듀퐁사 수입품 바이오 의류, 석탄으로 나일론을 만드는 기술로, 게르마늄, 티타늄 등 파동에너지를 발산하는 광물질을 녹여 만든 섬유.

① 24시간 착용만 하면 모든 근육, 모세혈관을 계속 운동시켜 튼튼한 몸을 만듭니다.
② 몸은 근육들로 촘촘이 짜여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근육은 발달되는 반면, 자주 운동하지 않는 근육은 퇴행성으로 진행되어 아프게됩니다.
③ 뼈와 모든 장기들을 지탱하는 것은 근육인데 근육의 불균형으로 신경과 모세혈관이 짓눌리게 되고 척추 측만증, 허리디스크, 골반 불균형, 각종만성병, 무릎통증등이 생깁니다.

신세계기업 올림 010-4391-0153

수강생 수시모집

즐거운 삶과 다이어트를 위하여
탐라댄스교실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교댄스 : 지루박, 부르스, 트로트, 탱고, 민요
댄스스포츠 : 모던, 라틴
시간 평일~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자격 : 개인, 부부, 직장인 단체

나이 관계없이 걸을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도

탐라무도학원
종합터미널 2층 ☎753-5308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